

# 대학개혁 자율성 초점... 권역별 평가 도입

### 역량진단 6→3등급 단순화... 정원감축 권고 84%→40%

### 전체 60% 자율개선대학 지정... 광주·전남 대학 '환영'

####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면 개편

정부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 등을 강제해 '육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전국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해 출세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에게도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6단계(A~C, D+, D-, E)로 구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등급을 3단계로 줄였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

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자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중 '유형 I' 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II 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 II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함께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정원 감축과 재정사업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 전체의 84%에서 40%로 줄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은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분류되고, 전문대의 경우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만 제외하고 다른 권역은 일반대와 같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은 교육부의 방침

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 유리하게 돼 있던 평가 방법을 권역별로 바꿔 지방대학 사정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준 것 같다"면서도 "기존 대학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법안전입금 비율, 교원확보 비율 등 평가지표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아쉽다"며 "세부 평가 지표와 기준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학교 관계자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방법은 권역별이 아닌 전국교의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개년에 평가하다 보니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권역별로 나눠 평가하면 지방대에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대학평가 기준이 지방대학 운영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2 해질 17:20  
달출 15:49 달짐 04:06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7
목포	구름맑음 0/6
여수	맑음 0/7
나주	구름맑음 -2/7
완도	구름맑음 1/7
구례	맑음 -3/6
강진	구름맑음 -2/8
해남	구름맑음 -2/7
장성	맑음 -2/6
보성	맑음 -4/6
순천	맑음 -1/7
영광	가름흐리고는 -3/5
진도	구름맑음 1/6
군산	구름맑음 -3/5
남원	맑음 -4/5
축산도	구름맑음 4/8

  

바다 날씨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먼바다 북서~북 1.5~2.5
남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5~2.5
남해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5~2.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간조 05:09, 만조 12:10
여수	간조 17:42, 만조 07:12

  

주간 날씨	
2(토)	-1/11
3(일)	0/13
4(월)	3/8
5(화)	-2/5
6(수)	-2/7
7(목)	-1/8
8(금)	0/8

## 광주 '빛고을장학금'

### 고소득층 수령 논란

#### 시민단체 "소득과파 부실"

#### 전체 63명중 9명 받아가

광주시의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일부 고소득층이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30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해보니, 장학생 63명 가운데 고소득층이 9명이었다"고 밝혔다.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부터 과거 성적 중심의 장학금 수여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되도록 개편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장학생 가운데 일부 고소득층이 포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각 대학이 학업성적과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해 추천한 학업장려 장학생 63명 가운데 고소득층이 9명이었다. 또 학업성적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한 중·고생 장학생 67명에 대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소득수준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허술한 학업장려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30일 광주시 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2017광주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콘서트'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온 김상곤 부총리 "학생부 신뢰도 향상안 이달 발표"

### 학부모와 공감 콘서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0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말까지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7 광주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콘서트'에서 "학부모들은 사실 수시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특히 가장 불만인 것이 학생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

시 비중이 73.8%, 2019학년도에는 82.3%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평가 항목을 현재의 10~11개에서 8개 수준으로 줄이고 부익부 빈익빈과 관련된 수 있는 항목을 관리통제 하는 등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에 종속돼 있어 입시를 제대로 바꿔야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며 "고교교육이 정상화되면 초·중학교 교육도 당연히 정상화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입시제도 개선이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집단으로 협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며 "고교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과 꿈을 찾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면 실제 학력은 2~3위 수준인데, 만족감·흥미도·자신감 등은 맨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안타까웠다"며 "하지만 최근 협력적 문제 해결력 측정에서 3위 안팎의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학생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지만원 "광주서 재판 못받겠소"

### 5·18 왜곡 항소심 관할 이송 신청...5월단체 "법적 대응"

광주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5월 왜곡 관련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보수단체 지만원씨가 항소심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이 지난달 15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 하루전인 14일 지씨가 대법원에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관할 법원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잠정 연기된다.

지씨는 인터넷 사이트 '뉴스타운'에 올린 칼럼에서 "정의? 공정한 재판? 광주에서는 웃기는 말들이다. 사기꾼들이 우글거리는 이 동네에서 자란 정치인들,

판관사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정은 DNA로 얼룩져 있을 것이다"며 "5·18사건은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지방법원의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실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고 관할 법원 이송 신청 사유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5월 단체는 지씨의 이송 신청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5월단체 관계자는 "지씨가 법원 이송 신청 사유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편향하고 있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5·18 사적지 탐방체험 운영

#### 기념재단 오는 20일까지

5·18기념재단이 5·18체험프로그램 '광주의 오월을 느끼다'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행사는 5·18민중화운동사적지 탐방을 원하는 단체에 차량(버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통수단 마

련이 어려워 5·18을 체험하지 못하는 단체에 버스를 지원, 5·18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전국 30명 이상 단체·학교로, 재단홈페이지(www.518.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월길'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하면 사적지 방문 때 안내해설사의 해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062-360-0545. /김용희기자 kimyh@

## (주) 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재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유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